"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여름공동체생활 셋째 주일입니다. 성서일기 범위는 지난 16일(금)부터 베드로전서로 바뀌었습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으로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림사랑방의 어르신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전반기 지역사랑방 방모임을 마치면서 모든 방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모이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다음을 위해 꾸준히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 공동체 학교들도 봄학기를 마치고 방학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이종옥 집사 (어머니 기일)
해은 전도사 · 조소연 사모 가정 (루가 돐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8 호
2021년 7월 1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예배의 시작

어린이학교에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동안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이철학과 마음나누기 시간을 가르치는 교사로 다양한 질문을 들을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 "선생님~ 종 쳐요?!" 이 짧은 문장에 아이들의 애환이 다 담겨있습니다. 좀 더 긴 자유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도 느껴지고 수업이 시작될 것에 대한 준비의 마음도 보입니다. "응~" 이 한마디에 아이들은 종을 치기 전인데도 교실로 뛰어가는 어린이, 마지막으로 공을 뻥~! 차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종은 여는 모임과 닫는 모임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수업의 시작과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데 사용됩니다. 종을 한번 울리는 것은 예비를 의미하고 두 번은 실제 그 일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있던 어린이들도 이 종소리를 들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종들이 존재했었고 또 존재합니다. 가장 큰 종으로는 울리지는 못하지만 존재하는 차르의 종부터 가장 친근한 종으로는 편의점의 문에 달려있는 종의 맑고 경쾌한 소리도 있습니다. 이 종을 치는 문화는 한반도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성문을 열며 33번, 그리고 저녁 10시에 성문이 닫히며 28번 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가 주된 산업이었기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일을 시작하니 그 때 종이 울리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유럽에서는 고딕양식의 높은 첨탑에 달려있는 종이 마을에 울려 퍼지면 미사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종을 울리는 것일까요? 먼저 교회에서 종을 울리는 이유는 귀신을 몰아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흔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할 일들, 떠오르는 얼굴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민들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종소리입니다. 울리는 종소리를 통해 예배의 공간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바쁘게 흐르는 시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휴식 또한 하나의 일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신 후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기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그분의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는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기 전에 종을 울립니다. 이 종소리와 함께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기념하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8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나 편의점, 성문에서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예배나 기도회의 시작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는 예배의 공간을 울릴 때 자연스레 모인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정리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종을 치는 것을 통해 시간을 성화시키고 공간을 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준비시킵니다. 시공간을 변화시켜 예배를 드릴 준비를 시키는 종은 지역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무슬림지역에 있는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다란 나무판을 건물에 달아놓거나 어깨에 메어 두드리며 이 종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방교회에 종이 생기기 전에는 징으로 그 역할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도구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시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학교에서 종을 울리기 전 어린이학교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며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이 종소리가 울려퍼질 때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 사랑방 권재만 목사

한주간의 말씀

"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

<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야고보서 4장
제목 :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05 218 278 292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10절 자신을 낮추십시오
의문형이 나타난다. 명령문이 많이 쓰였다. 000하십시오, 그리하면, 000 것이다 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11절~17절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율법, 심판, 시기심, 경쟁심

2. 내용의 의미(Why)
질문의 형태로 대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욕심(소유욕)으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결단을 촉구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중요한 율법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형제자매를 헐뜯는 것에 비유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형제자매를 헐뜯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의 밑바탕에는 상대를 향한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합시다. 경건한 삶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②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용한 침공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다. 이런 사실이 처음엔 모순으로 들릴 것이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자신을 희생할 만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사랑이다!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만났다. 그가 내가 만난 수많은 재소자와 다를 게 없었다. 이가 빠지고 문신을 한 데다 방탕한 생활로 얼굴은 상처투성이였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평생 처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한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가 무릎을 꿇은 채 울면서 말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마피아 보스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귀하다고 느낀 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용서받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롬5:8)

이들은 복음의 핵심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부자와 힘있는 자뿐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까지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지려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에는 당신과 나의 죄도 포함된다. 모든 정통적 신앙고백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이것은 은혜의 근원이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구원이다.

십자가에 달린 둘째 강도를 절대 잊지 말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회개하고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그는 천국의 한 자리를 약속받았다. 성경에서 한 개인이 이런 약속을 받은 곳은 여기뿐이다.

우리 모두는 첫째 강도나 둘째 강도, 어쩌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위에 서 있는 무리 가운데 하나와 같다. "너 거기 있었는가?"라는 흑인 영가를 기억하라. 당신은 그곳에 있었다.

인류 역사의 핵심인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숙고할 때 날마다, 순간마다 재현된다. 그 누구고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이 질문을 피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찰스 콜슨의 [순전한 믿음]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태일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요한복음 4 : 24	인도자
*예배의 찬송	32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시편 103 : 3-5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478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베드로전서 1 : 3 - 9	설교자
성가대 찬양	382	사랑방
설 교	" 보이지 않는 신앙적 가치를 기준으로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59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55(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만물을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보이지 않는 신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 본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3-4>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해주시며,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5-6>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7-9> '우리'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므로,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입니다.

산 소망,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썼습니다. '산 소망'은 구원을 의미하며,<5,9> 구체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7> 즐거움, 영광, 기쁨을 의미합니다.<8> 그러므로 산 소망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시련과 유혹이 있는 중에서 산 소망을 기억하라 위로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기억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라 권면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나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가치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산 소망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때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비대면 첫날에 원하는 가정에 한해 학부모 상담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가정이 신청을 해주셔서 선생님과 모든 부모님 마음을 모아 대화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지내면서 보여준 아이의 모습과 성장 과정을, 부모님은 집에서 지내는 모습과 질문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아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방법 면에서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꾸러기들은 매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아침모임을 합니다. 체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책도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그날에 놀거리 꾸러미를 열면서 소개를 받는데 애들은 방방 뛰고 날리가 납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얼굴을 직접 못 보는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여름이라 물놀이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멋진 배와 물고기를 만들어 낚시 놀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표정그리기, 심해바다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매일 놀거리 사진을 찍어서 가정별로 단체 카톡방에 올려줘서 아침모임 이후에도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귀여운 꾸러기 사진으로 단체 톡방은 하루 종일 시끌시끌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꾸러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침 모임을 하고 방학을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한 경험이 있다보니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수업 진도도 1주 남은 상황이어서 필요한 수업들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교시 성서일기, 2~3교시 수업, 닫는 모임으로 진행했고 금요일에는 성서일기 시간을 가진 뒤 방학식을 했습니다. 방학식 때 7월 후반부의 생일인 친구들 4명의 생일을 축하해줬습니다. 직접만나 편지도 주고 노래도 불러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방역과 기도 등 많은 도움을 주신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조 익 >

멋쟁이학교

종강 발표회가 끝나고 멋쟁이들의 1학기 마지막 귀가 후 돌아온 월요일에 선생님들은 모여서 남은 물건과 생활관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멋쟁이 전체가 온라인으로 모여 방학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알찬 방학을 위한 과제 안내도 있었습니다.

멋쟁이 모두가 해야 하는 방학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멋쟁이 전체 과제>

1. 성서 일기, 본문 중 중요 구절 학년 단체 채팅방에 매일 올리기
2. 필독도서 독서록 3권 제출
3. 부모님께 직접 요리하여 식사 대접 후 담임 선생님께 인증 사진 제출
4. 집안일 도우기 2회 이상(청소, 분리수거,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 담임 선생님께 인증 사진 제출

이 외에도 학년별로 배우는 과목에 대한 숙제와 한 학기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담임선생님이 주시는 개인별 과제까지, 멋쟁이들에게 알찬 방학을 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멋쟁이들과 각 가정,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방학되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장성아 >

손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카톡!! 소리와 함께 생활공동체 전체 카톡방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오늘 하우스를 만드는 일이 있는데 손이 필요하다는 문구입니다.

잠에서 온전히 놓이지 않은 부스스한 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작업 시작 시간을 알려줍니다. 16살. 한창 모든 것이 귀찮을 나이인지라 투덜투덜 몇 마디를 던져보지만, 엄마에게 자신의 말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금세 말을 거둡니다.

아빠보다 먼저 일할 준비를 하고 위 운동장으로 가는 아들의 뒷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다 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분들의 작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만 가서 물심부름이라도 하라고 한마디 보태어 굳이 아들을 공동작업에 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공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먼저 꼽을 것은 '공동작업'입니다. 일을 함께하는 것이죠.

일을 함께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 함께 작은 손이라도 보탠다는 것은 소속감을 일깨워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일을 배우는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물심부름만 했는지 생각보다 보송보송한 얼굴로 작업을 마치고 들어온 아들에게 잘~~~했다. 과한 칭찬을 해줍니다. 남자 어른분들의 세계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내심 뿌듯한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어엿한 공동체원이 되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가꿔가겠지요.

다시 카톡이 울립니다. 월요일 아침 6시에 짐을 옮겨야 한다는 공지네요. 또 손이 필요하답니다. 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또 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아들 손과 더불어 저의 손도 보태야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에베소서 5:15-20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

남아공 콰줄루나탈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및 약탈행위가 경제행정의 중심인 하우텡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혐의를 받던 주마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구금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정부가 코로나 봉쇄 조치를 강화하자 불만이 쌓였던 시민들이 가세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군병력을 배치해 폭동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사망자 72명)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대만 린즈내교회 노효종 김희정 선교사>
1) 린즈내교회와 영성수련원(심령의 고향)을 섬기는 형제자매들의 몸과, 영혼에 힘주시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린즈내 교회와 영성 훈련원을 통해 대만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 2021년 10월 대만 선교사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지역별사랑방 전반기 모임 마무리를 위해 / 여름공동체생활 중 마음으로 참여
2) 사랑방공동체학교 학기말(꾸러기, 어린이학교)을 위해
3) 코로나 2주간 4단계 방역이 잘 되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몹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와 낙뢰에 공동체 사무실의 차단기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서, 공동체도 한산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린이학교도 종강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주를 온라인으로 마치게 되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모두 건강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학교 선생님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생활공동체에 있는 여러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번주는 백신 휴가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